

급으로 쌓이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더 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축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데 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 앞에서 합당하다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데 교회 안에서 합당한 자라 인정받은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 어느 처소에 들어가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천국 어디든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에 있다 해도 때때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낙원에 사는 영혼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으므로 민망하여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거나 함께 거닐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과 언제 어디든지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3천층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시지만 그중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성결한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면 그에 따른 보장과 관세, 능력 등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4.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으며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사데 교회의 몇몇 성도들에게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기는 자

는 흰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흰옷이란 구원받은 사람이 라면 모두가 입는 옷으로서 구원의 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데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흰옷은 단순히 구원의 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성결한가'에 따라 주는 흰옷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일수록 더 밝고 영롱한 빛의 흰옷을 주시므로 천국에서는 옷만 보아도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거룩한 마음을 이루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옷에 부착하는 각종 장식을 통해서도 상급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아름다운 장식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흰옷을 주시는 것 외에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계 3:5). 사람이 호흡하고 있다고 해서 진정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만일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신 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끝까지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보좌 대심판 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펴셨을 때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바뀌 생각하면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해도 흐려질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생을 얻기 위한 길로 들어섰다 할 수 있지만 다시 그 길에서 이탈하면 성령이 소멸되고(살전 5:19)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흐려집니다(출 32:33).

성경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등 현저한 육체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갈 5:19-21).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훼방하거나 거역, 모독하는 것(마 12:31-32; 눅 12:10), 성령에 참예한 후 타락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욱보이는 것(히 6:6),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짓는 것(히 10:26)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망에 이르는가' 하는 것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구원이란 단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 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자유 의지 가운데 구원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고, 지금은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 구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5.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

사데 교회의 몇몇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될 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차 백보좌 대심판을 받으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천사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도 있지만, 각 사람을 감찰하는 사명을 맡은 천사(마 18:10)도 있어서 이러한 천사에 의해 기록된 모든 것이 백보좌 대심판 때 증거 자료가 됩니다.

천사가 직접 나서서 증언하지 않는다 해도 그 정확한 기록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인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사데 교회에 대해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서신을 마무리하십니다. 사데 교회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변화되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 호소하신 것입니다.

사데 교회의 성도는 대부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돌아키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진리를 이제는 행함으로써 산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구원받은 만한 믿음을 가진 몇몇 성도가 있다 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겨 나가야만 구원의 징표인 흰옷을 받으며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러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므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진리로 바르게 깨우쳐 주는 목자가 없으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진리를 좇는 영혼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어 더 좋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아 흠없는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을 온전히 갖추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토 러시아를 깨운
이재록 목사 초청 러시아 연합대성회



▶ 2003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상트 페테르부르크 올림픽 스타디움(S.K.K)에서 러시아 교회협의회(ACCR 회장: 이고르니키펀 목사) 주최로 열린 러시아 연합대성회는 잠들어 있던 러시아를 깨운 영적 대혁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수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이 성회는 러시아 넵스키 TV와 OTB, TBN를 통해 러시아 전역에 생중계되었으며 12개의 위성과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TV로 전 세계 약 150개국에 보도되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August Programs

한여름 열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프로그램으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GCN 방송과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주요프로그램

-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
- 남, 여장년 하계수련회 캠프파이어
- 6개연합 하계수련회 캠프파이어
- 특선영화 '왕중왕'

MANMIN TV 위성 및 인터넷TV 안내 1577-2073